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58-2호)

# 여론속의 여輿론論

종교지표 - 2021년: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2021. 12. 8.

---

담당자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운영책임

###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연구진

###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1 2021년 종교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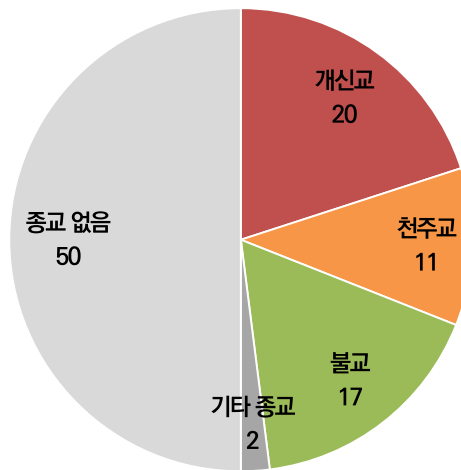
## 2021년 종교인구 비율,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종교 없음 5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는 2018년 1월 처음 조사를 시작했으며, 2019년 2월까지 1회, 그 이후부터는 격주 1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 조사에서 믿는 종교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다.

2021년 진행한 23번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인구의 20%가 개신교를 믿고 있으며,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전체의 17%이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전체의 11%,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2%이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50%는 믿는 종교가 없다.

2021년 종교인구 비율,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종교 없음 50%

(단위 : %)



질문 :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비고 : 2021년 1월 ~ 11월 총23회 진행한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의 종교 응답을 통합해 연령별로 제시

조사기간 : 2021년 1월 ~ 11월(격주 1회, 총 23회 진행)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총 23,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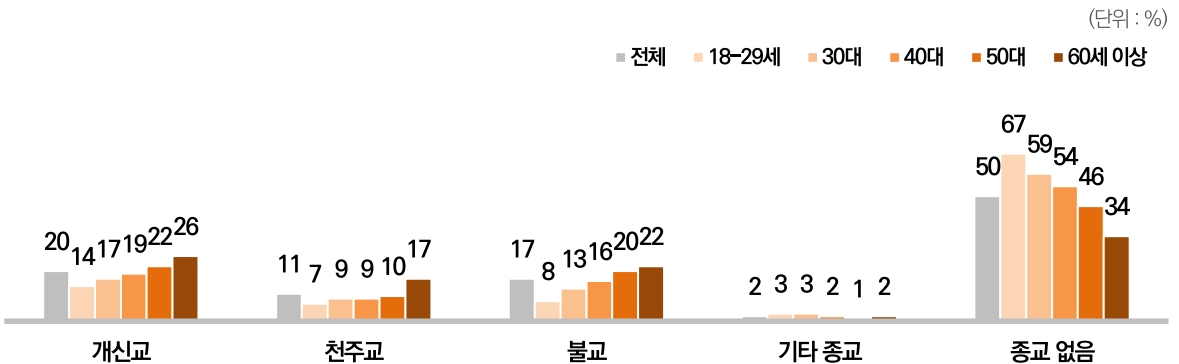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연령대가 낮을수록 믿는 종교 없다는 응답도 높아 광주·전라는 개신교 비율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불교의 비율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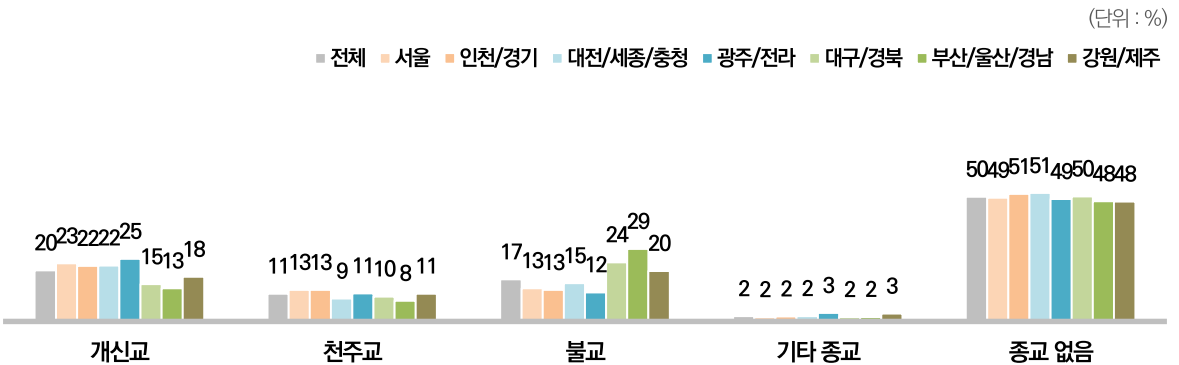
연령대가 낮을수록 믿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18-29세 응답자 중 67%가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60세 이상 응답자 중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34%로 18-29세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연령대별 종교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종교 인구 비율과 동일하게 개신교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불교와 천주교가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 거주자는 개신교 신자 비율이 25%로 전체 평균(20%)보다 높았다. 반면 불교 신자의 비율은 부산·울산·경남(29%)과 대구·경북(24%) 거주자에서 전체 평균(17%)보다 높았다.

18-29세 중 67%, 60세 이상에서는 34%가 '믿는 종교 없다'



광주·전라는 개신교 비율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불교의 비율 높아



질문: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비고: 2021년 1월 ~ 11월 총23회 진행한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의 종교 응답을 통합해 연령별로 제시

조사기간: 2021년 1월 ~ 11월(격주 1회, 총 23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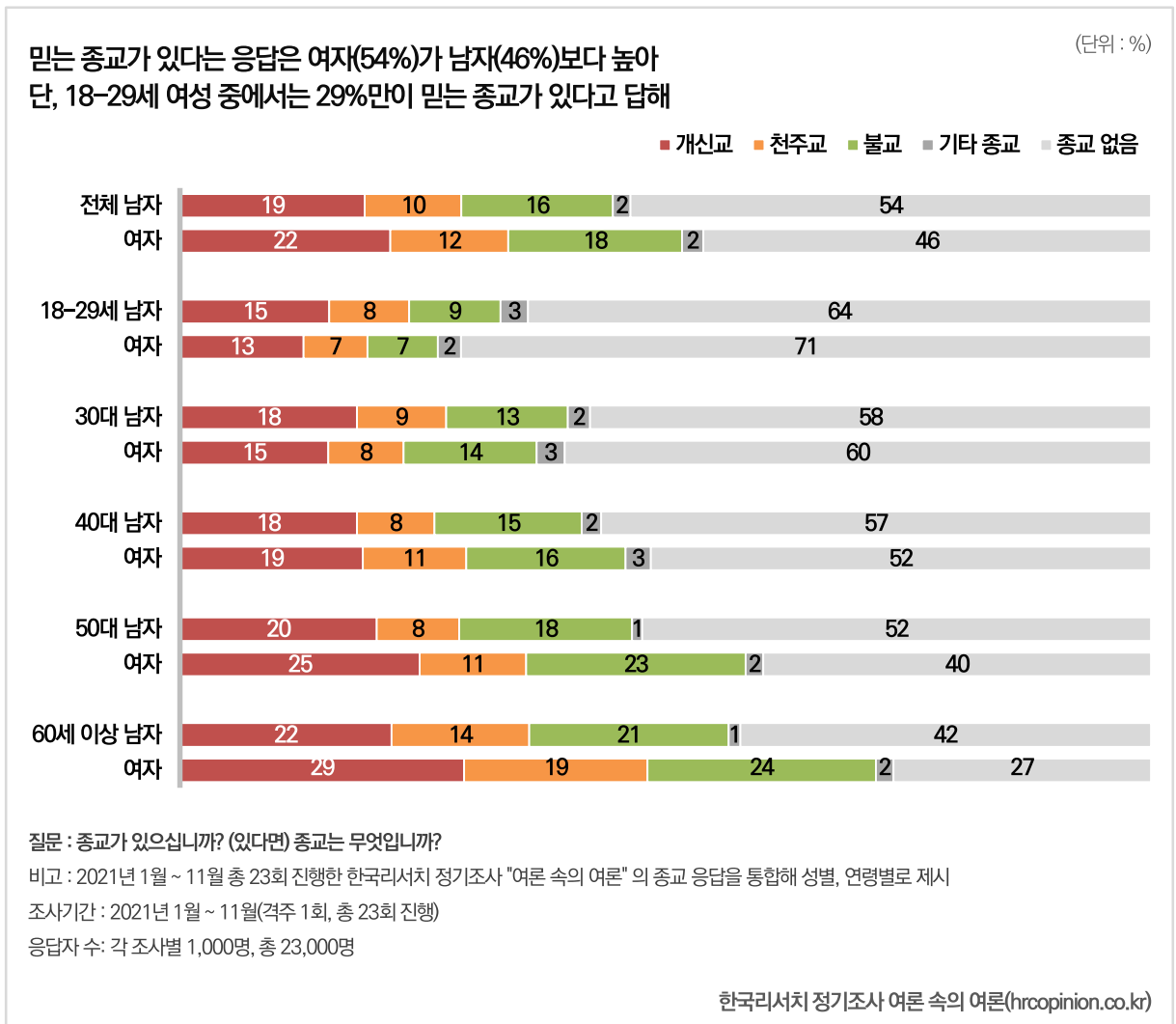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총 23,000명

## 믿는 종교가 있다는 응답은 여자(54%)가 남자(46%)보다 높아 단, 18-29세 여성 중에서는 29%만이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해

전체 남자 중 19%가 개신교, 16%가 불교, 10%가 천주교를 믿고 있으며, 54%는 믿는 종교가 없었다. 전체 여자 중에서는 22%가 개신교, 18%가 불교, 12%가 천주교를 믿고 있으며, 46%는 믿는 종교가 없었다.

믿는 종교가 있다는 응답은 여자(54%)가 남자(46%)보다 높았다. 하지만 18-29세만 놓고 보면 믿는 종교가 있다는 응답은 남자(36%)가 여자(29%)보다 높았고, 30대에서도 남자(42%)가 여자(40%)보다 믿는 종교가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믿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18-29세 남자는 36%, 여자는 29%만이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했으나 60세 이상에서는 남자의 58%, 여자의 73%가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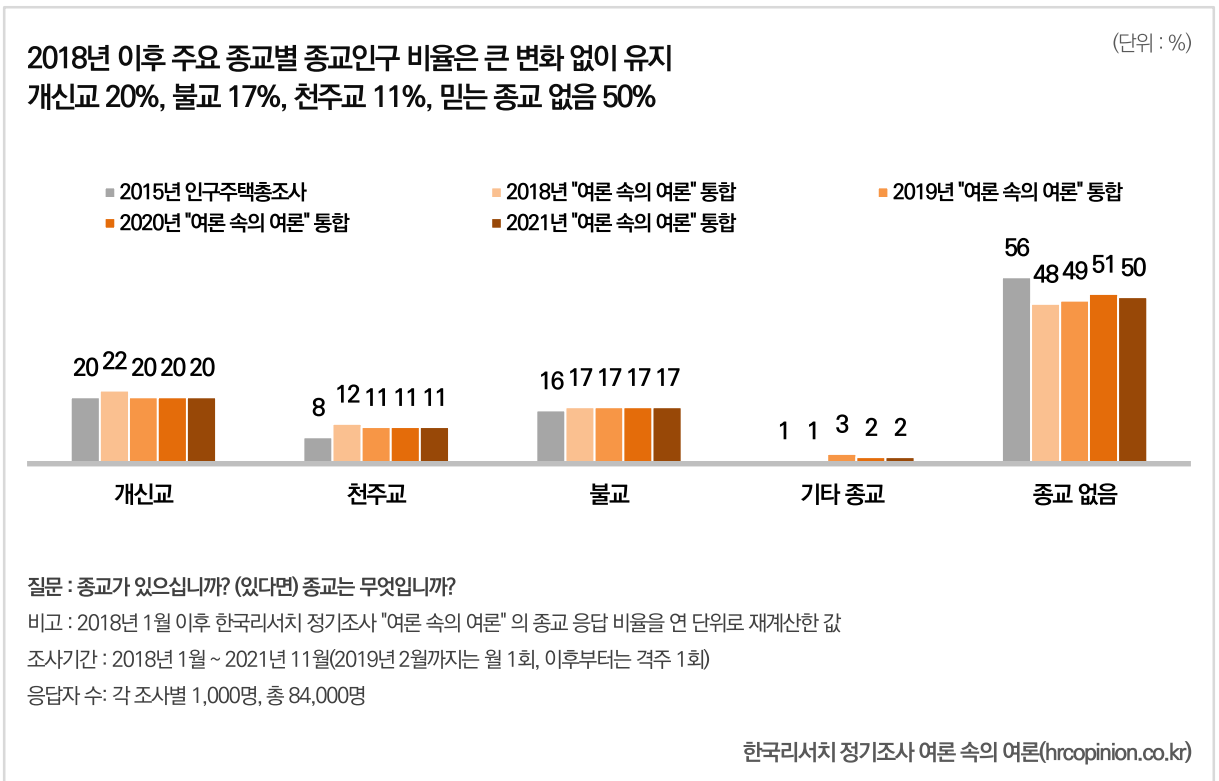
# 2

## 우리나라 종교인구 변화

### 2018년 이후 주요 종교별 종교인구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믿는 종교 없음 50%

2018년 이후 종교 인구 추이를 보면, 주요 3대 종교 모두 큰 변화 없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이후 개신교 신자의 비율은 전체의 20%, 불교 신자의 비율은 17%, 천주교 신자의 비율은 11%이다.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 역시 꾸준히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전체 인구 중 개신교 신자는 20%, 불교 신자는 16%, 천주교 신자는 8%,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56%였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는 10년 주기 표본조사 항목으로, 다음 조사는 2025년이다.



## 2018년 이후 50대 이상에서 ‘믿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 증가세

2018년 이후 연령대별 종교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봤을 때, 50대 이상에서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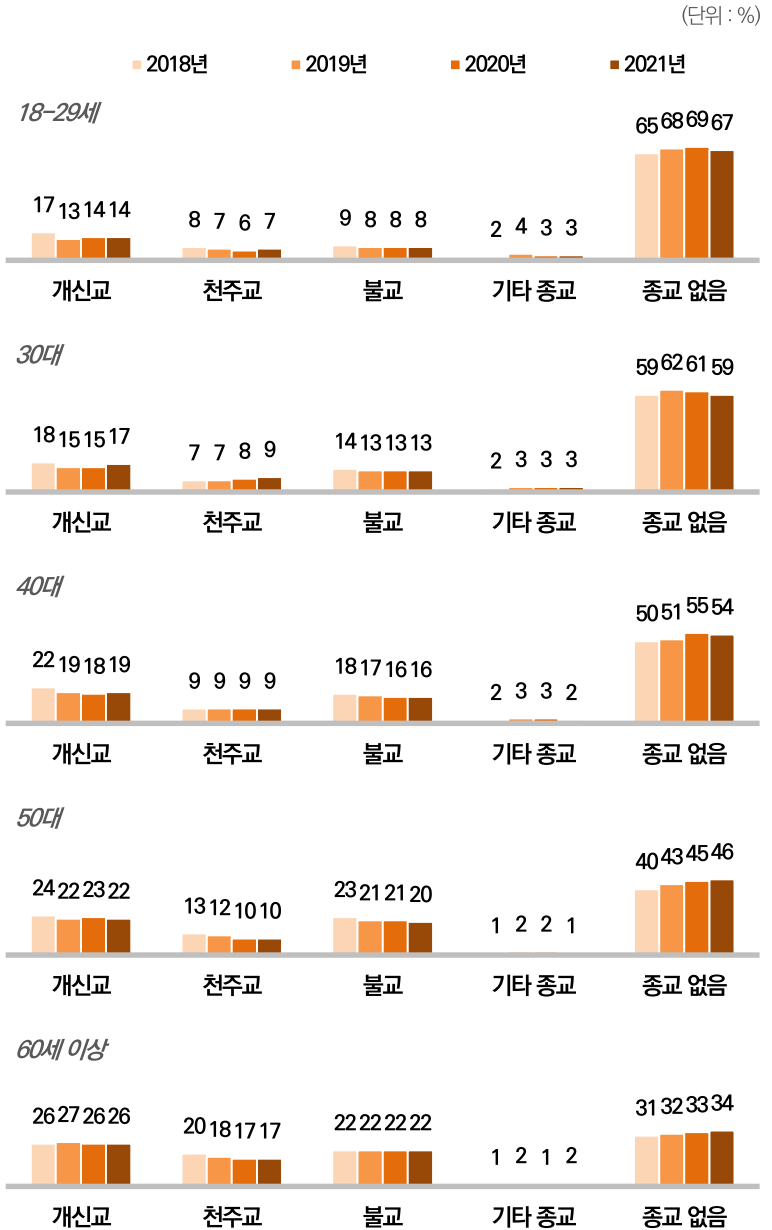
50대에서 ‘믿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2018년 40%에서 올해 46%로 높아졌고, 3대 종교를 믿고 있다는 응답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천주교와 불교 신자의 비율은 각각 3%포인트씩 감소했고, 개신교 신자의 비율도 2%포인트 감소했다.

60세 이상에서도 믿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2018년 31%에서 올해 34%로 매년 1%포인트씩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의 개신교와 불교 신자의 비율은 2018년 이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천주교 신자의 비율은 3%포인트 감소하였다.

20대와 30대의 비종교인 비율은 여전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지만,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18-29세의 비종교인 비율은 67%로 전년 대비 2%포인트 감소하였고, 30대의 비종교인 비율은 59%로 201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하였다.

종합해 보면 50세 이상에서의 종교 인구 감소를 20대와 30대의 종교 인구 유입으로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2019년 이후 종교인구 비율이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대별 종교인구 변화(2018년 이후)



질문 :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비고 : 2018년 1월 이후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의 종교 응답 비율을 연 단위로 재계산한 값

조사기간 : 2018년 1월 ~ 2021년 11월(2019년 2월까지의 월 1회, 이후부터는 격주 1회)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총 84,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3 종교를 믿기 시작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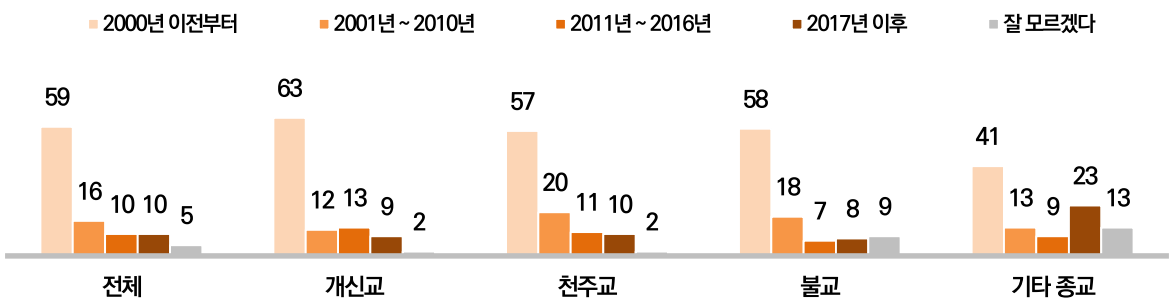
## 현재 믿는 종교, 2000년 이전부터 믿고 있다 59%

2021년 11월 26일 ~ 29일 진행한 조사에서, 현재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508명에게 언제부터 현재 믿고 있는 종교를 믿기 시작했는지를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59%가 2000년 이전부터 현재 믿는 종교를 믿기 시작했다고 답했고, 2001년 ~ 2010년(16%), 2011년 ~ 2016년(10%), 2017년 이후(10%) 등의 순이었다. 개신교(63%)와 천주교(57%), 불교(58%) 신자 모두 2000년 이전부터 믿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천주교와 불교는 2001년 ~ 2010년 사이부터 믿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각각 20%, 18%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33%가 2001년 ~ 2010년 사이, 31%가 2017년 이후 현재 믿는 종교를 믿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반면 40대의 56%, 50대 이상에서는 70% 이상이 2000년 이전부터 현재 믿는 종교를 믿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40대 이후부터는 새롭게 종교를 믿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존부터 믿어왔던 종교를 계속해서 믿는 경향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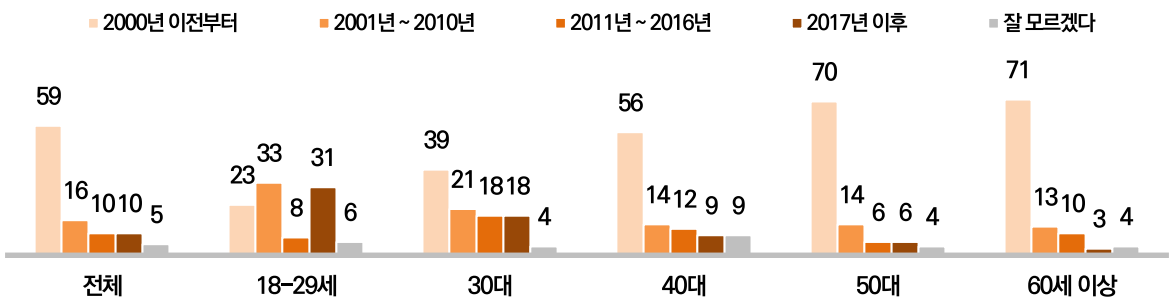
종교가 있는 응답자 10명 중 6명, 2000년 이전부터 현재 믿는 종교를 믿고 있다고 답해

(단위: %)



50대부터는 70% 이상이 2000년 이전부터 현재 믿는 종교를 믿고 있다고 답해

(단위: %)



질문: 현재 갖고 계신 종교를 믿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고: 믿는 종교가 있는 응답자 508명의 응답

조사기간: 2021. 11. 26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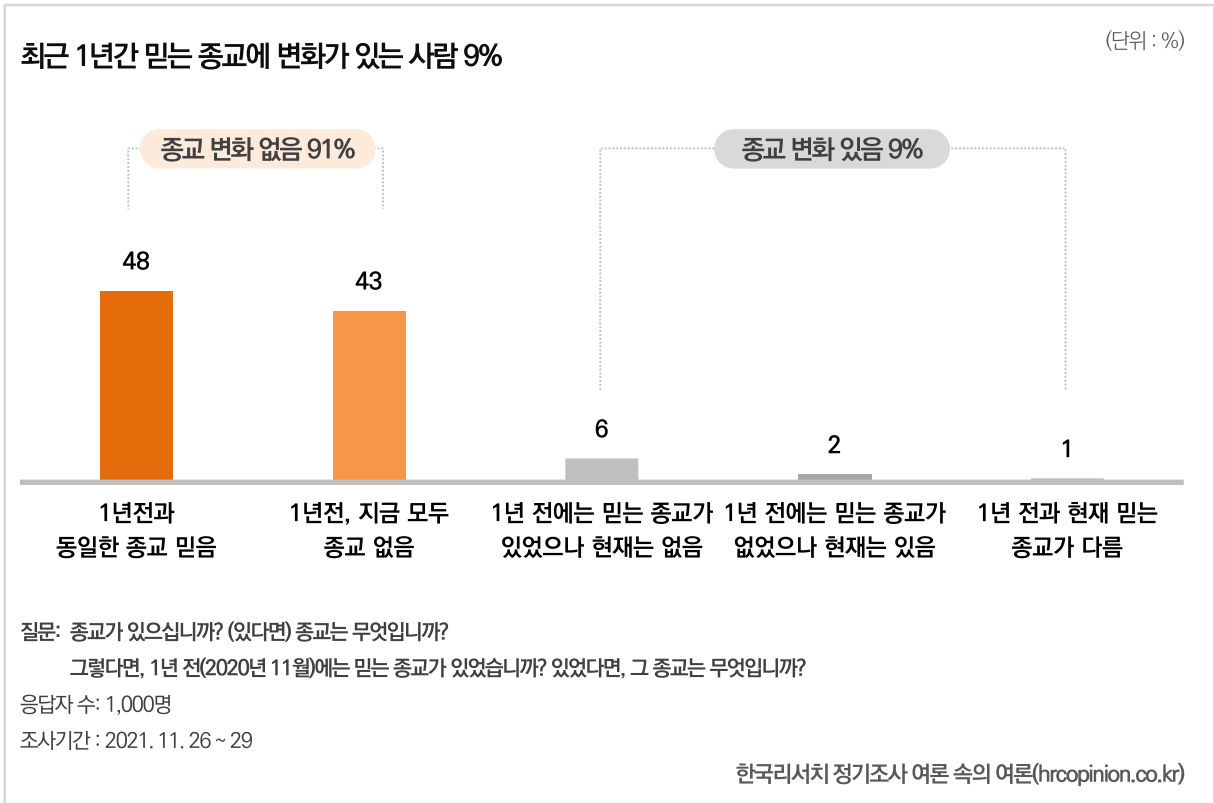
# 4

## 최근 1년간 종교 변화

### 최근 1년간 믿는 종교에 변화가 있는 사람 9%

2021년 11월 26일 ~ 29일 진행한 조사에서, 1년 전인 2020년 11월과 동일한 종교를 현재도 믿는 사람은 48%, 1년 전과 현재 모두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은 43%였다. 모두 합해 91%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종교에 변화가 없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종교에 변화가 있는 사람은 전체의 9%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 전에는 믿는 종교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고 답한 사람이 6%, 반대로 1년 전에는 믿는 종교가 없었으나 현재는 있다고 답한 사람이 2%였다. 1년 전과 현재 믿는 종교가 다르다는 응답은 1%였다.



## 최근 1년간 종교 변화,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1년 전 개신교, 불교 신자였던 사람 중 12%는 ‘현재 믿는 종교 없음’

최근 1년 사이 믿는 종교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40대 이하에서 다소 높았다. 18-29세의 13%, 30대와 40대의 12%는 최근 1년 사이 믿는 종교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4%만이 최근 1년 사이 믿는 종교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1년 전 개신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 중 12%는 현재는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고, 1%는 다른 종교로 전향했다고 답했다. 1년 전 천주교 신자였던 사람 중 8%는 현재는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고, 2%는 다른 종교로 전향했다고 답했다. 1년 전 불교를 믿었던 사람 중에서는 12%가 현재는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고, 2%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답했다. 1년 전 믿는 종교가 없었던 사람 중 96%는 현재도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고, 4%는 현재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했다.

### 최근 1년간 종교 변화,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1년 전 개신교, 불교 신자였던 사람 중 12%는 ‘현재 믿는 종교 없음’

(단위 : %)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례수 (명)	① 종교 변화 없음	② 1년 전에는 믿는 종교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③ 1년 전에는 믿는 종교가 없었으나, 현재는 있음	④ 1년 전과 현재 믿는 종교가 다름	종교 변화 있음 (②+③+④)	계
전체	(1,000)	91	6	2	1	9	100
<b>연령</b>							
18-29세	(176)	87	10	2	1	13	100
30대	(152)	88	7	3	3	12	100
40대	(185)	88	8	4	1	12	100
50대	(194)	91	6	2	1	9	100
60세 이상	(293)	96	4	0	0	4	100
<b>1년 전 종교</b>							
개신교	(207)	87	12	-	1	13	100
천주교	(130)	90	8	-	2	10	100
불교	(191)	86	12	-	2	14	100
기타 종교	(27)	69	19	-	11	31	100
무교	(445)	96	-	4	-	4	100

질문: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1년 전(2020년 11월)에는 믿는 종교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종교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1. 11. 26 ~ 2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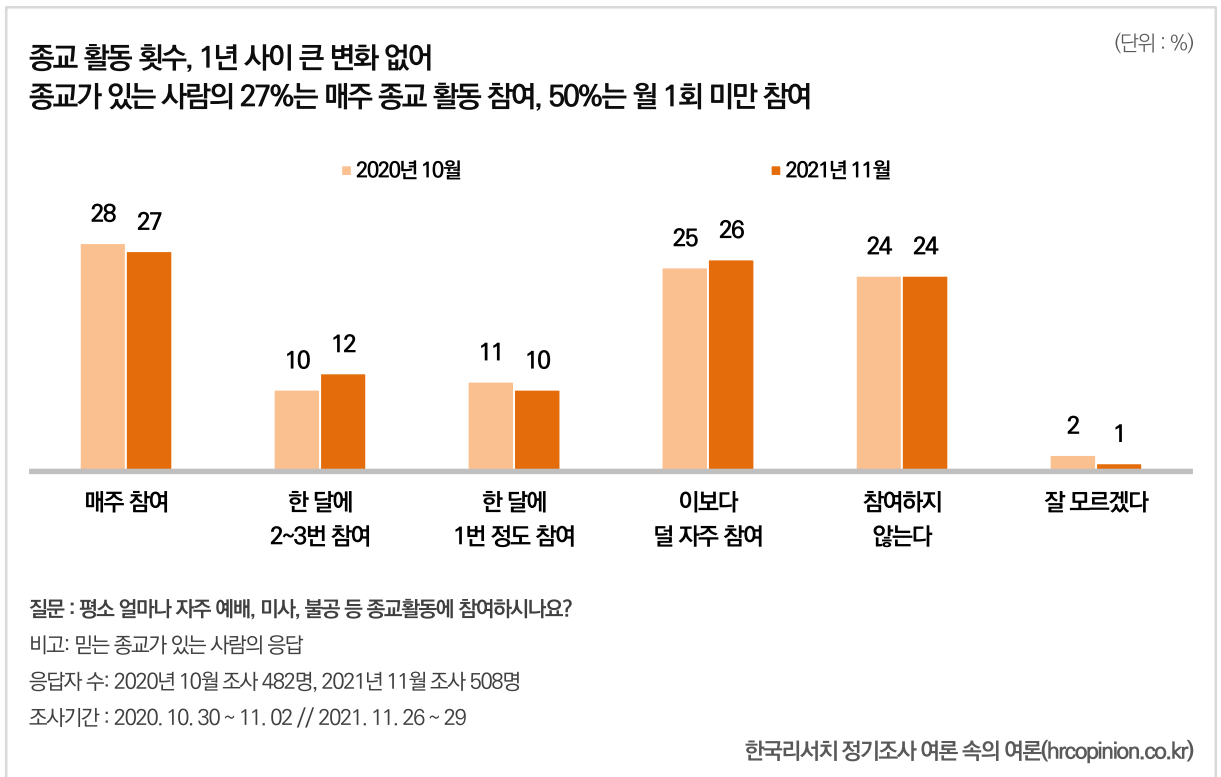
## 종교 활동 빈도와 중요성 인식

### 종교 활동 빈도, 1년 사이 큰 변화 없어

### 종교가 있는 사람의 27%는 매주 종교 활동 참여, 50%는 월 1회 미만 참여

현재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중, 예배나 미사, 불공 등 종교활동에 매주 참여한다는 응답은 27%를 차지하였다. 최소 월 1회 이상 종교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49%였으며, 50%는 한 달에 한 번도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종교 활동 빈도는 작년 10월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1%포인트 감소하였고, 아예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작년과 동일한 24%였다.



## 종교 활동 참여 빈도, 개신교 > 천주교 > 불교 순으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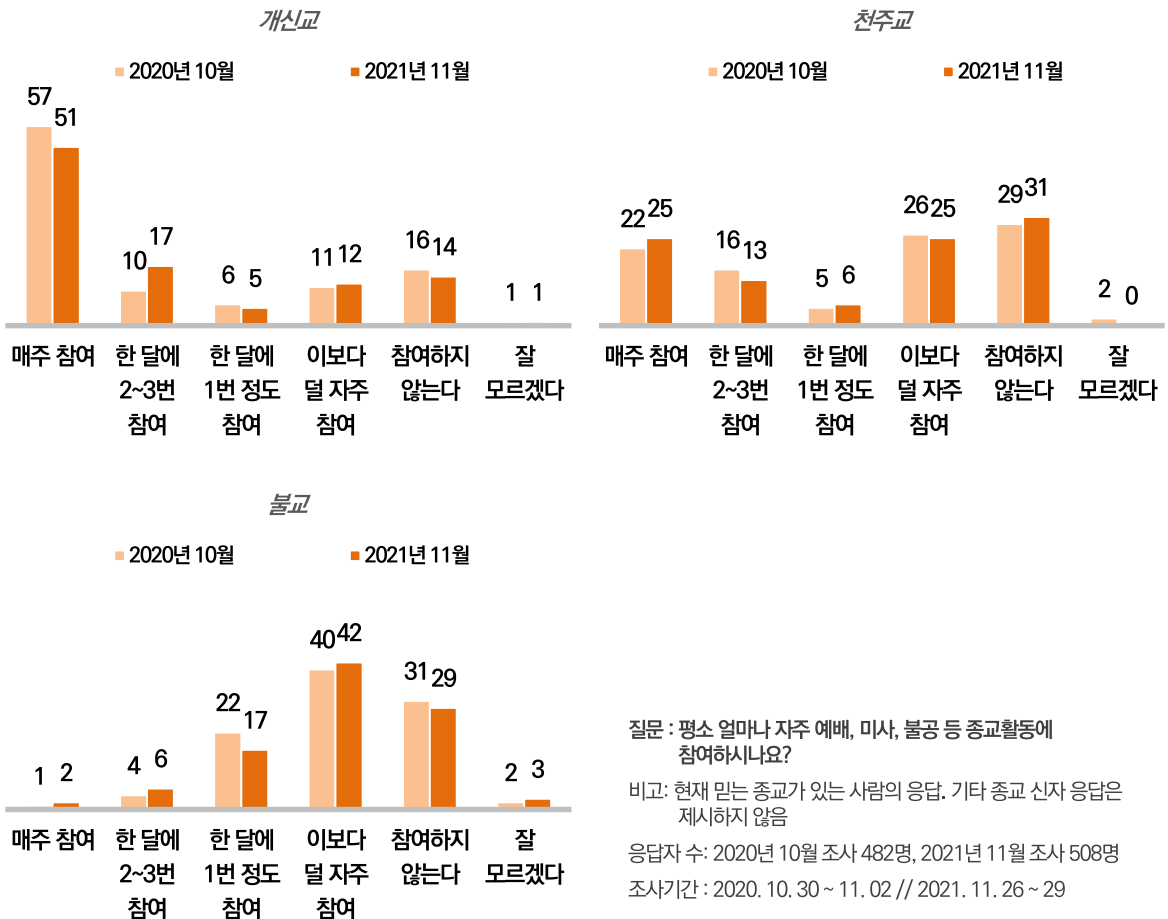
개신교 신자 중 51%는 종교활동에 매주 참여한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대비 6%포인트 감소한 결과이다. 반면 한 달에 2~3번 참여한다는 응답은 17%로 작년 대비 7%포인트 높아졌다. 종교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로 작년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천주교 신자 중 25%는 종교활동에 매주 참여한다고 답해, 작년 대비 3%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종교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해 31%를 차지했다. 천주교 신자 중 월 1회 미만, 혹은 아예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은 56%였다.

불교 신자 중에서는 42%가 월 1회 미만 종교활동에 참여한다고 답했고, 71%가 작년과 동일하게 월 1회 미만, 혹은 아예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신교 신자 중 51%는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  
천주교 신자 중 56%, 불교 신자 중 71%는 종교활동 참여 빈도가 월 1회 미만

(단위 : %)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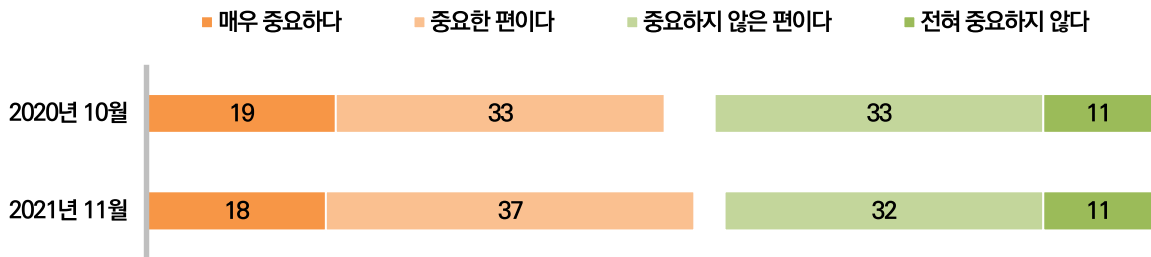
##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 54%,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포인트 증가 개신교 신자 78%, 천주교 신자 50%, 불교 신자 34%가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중 54%가 종교활동이 삶에서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한 편이라고 답했다. 반면 43%는 종교활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종교활동이 삶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은 작년 대비 2%포인트 높아졌다.

종교활동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신교 신자는 78%가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해, 작년에 이어 높은 수준이었다.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50%가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해, 작년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종교활동 참여율이 낮은 불교 신자는 34%가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대비 8%포인트 상승한 결과이지만, 개신교와 천주교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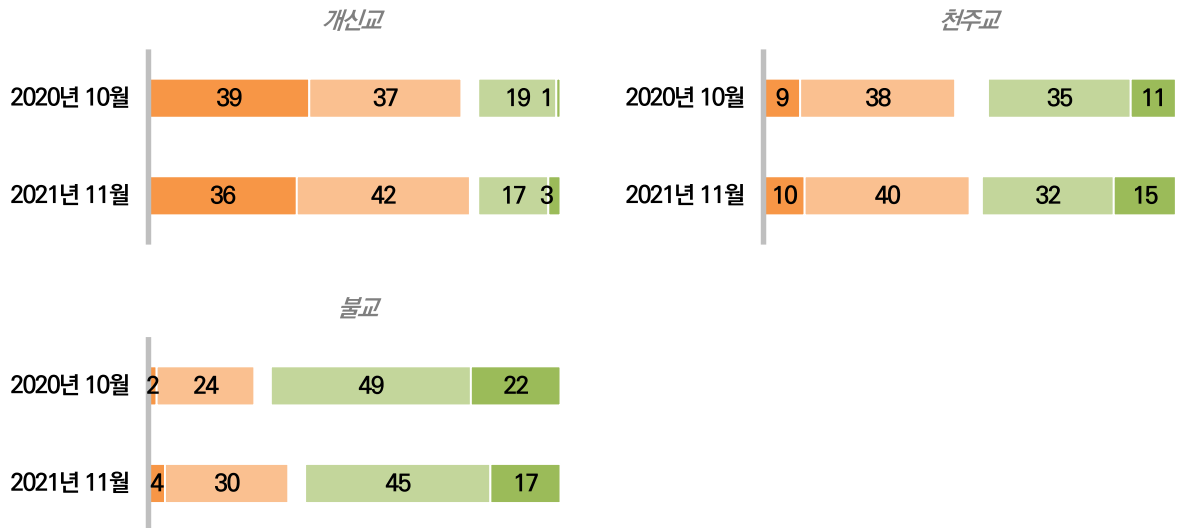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 54%,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포인트 증가

(단위: %)



### 개신교 신자, 종교활동이 삶에서 중요하다는 응답 높은 수준 유지

불교 신자, 종교활동이 삶에서 중요하다는 응답 8%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주요 종교 중 가장 낮음



질문: 기도, 예배, 미사, 불공 등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고: 현재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의 응답. 기타 종교 신자 응답은 제시하지 않음

응답자 수: 2020년 10월 조사 482명, 2021년 11월 조사 508명

조사기간: 2020. 10. 30 ~ 11. 02 // 2021. 11. 26 ~ 2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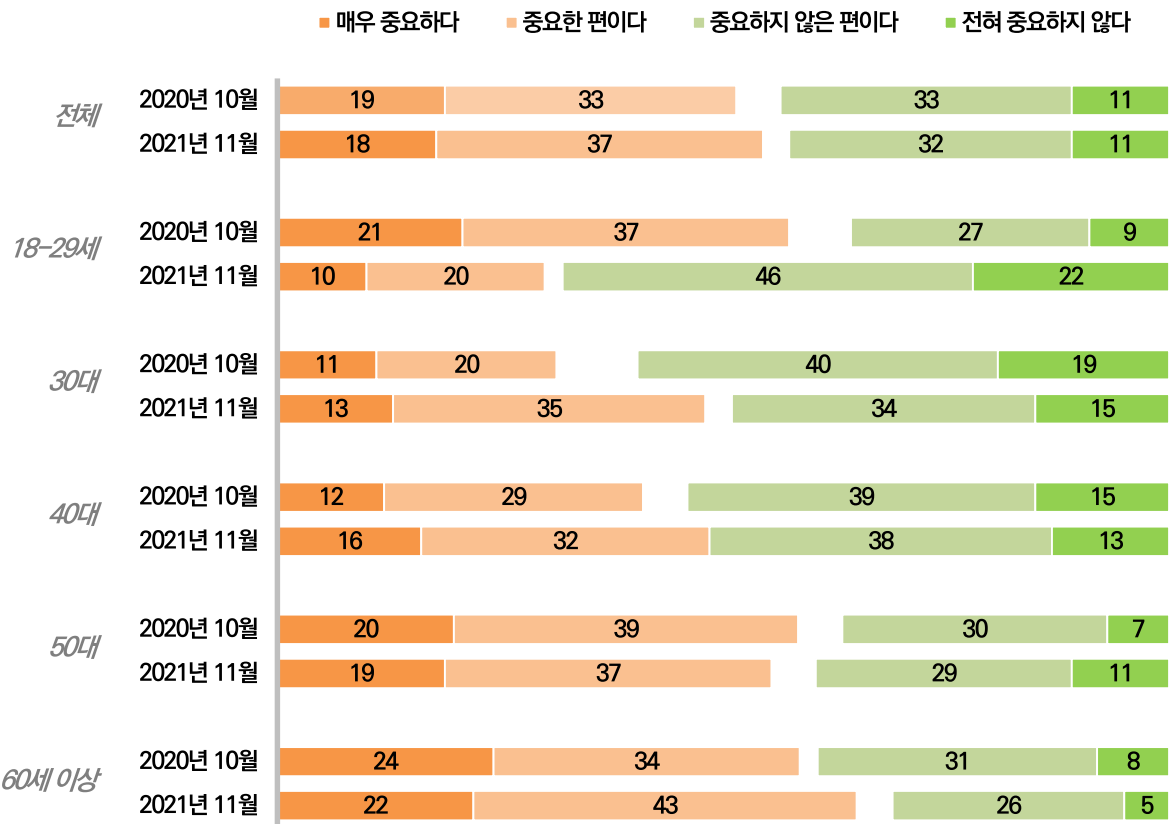
##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응답도 높아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응답도 높았다. 60세 이상 신자 중에서는 65%가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작년 대비 7%포인트 높아진 결과이다. 50대에서는 56%가 종교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해 작년 대비 2%포인트 낮아지긴 했으나,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18-29세 신자 중 본인의 삶에서 종교활동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30%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하락하였다. 30대 신자 중에서도 48%만이 삶에서 종교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20대와 30대는 종교 인구의 비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종교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 또한 높지 않은 것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응답도 높아

(단위 : %)



질문 : 기도, 예배, 미사, 불공 등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교 : 현재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의 응답

응답자 수 : 2020년 10월 조사 482명, 2021년 11월 조사 508명

조사기간 : 2020. 10. 30 ~ 11. 02 // 2021. 11. 26 ~ 2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10월 기준 약 70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1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438명, 조사참여 1,280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3.4%, 참여대비 78.1%)
조사일시	• 2021년 11월 26일 ~ 11월 29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 여輿論論

40 HANKOOK RESEARCH  
YEARS

